

올해 공공공사 발주 시기 촉각

도내 공공기관을 통해 발주될 공사 물량의 규모 및 시기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시·군 등 지자체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은 연초 발주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올 한해 각 업체의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발주 금액과 발주 시기를 파악해 수주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내용이 공개되는 입찰이 이뤄지기 전에 업계의 분할·분리발주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리 발주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지역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다음 달 26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올 한 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발주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하위윤기자

구 미군기지 주변 개발 4701억 투입

도, 2018년까지 21개 사업

강원도는 주한미군기지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2018년까지 4701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춘천 캠프페이지~서

면 간 도로 개설사업에 15억원, 철원군 한탄강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12억원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사업 국비 2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총사업비는 470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까지 8개 시군 21개 사업에 투자된다.

올해는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매입에 189억원, 캠프페이지~서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3억원, 원주 캠프롱 부지매입에 115억원, 북원주IC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4억원, 철원 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에 24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안은복 rio@kado.net

대기업 '부실' 지역 건설사 '불똥'

은행권 소극적 대출에 공사비 조달 전전긍긍 대출 만기연장 어려워

강원도 연고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대기업의 재무구조악화, 도내 건설사들도 자금난에 빠지는 도미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가뜩이나 취약업종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로 차별받고 있는 건설사들은 최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등 대기업 부실사태로 인해 시중은

행의 대출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5일 도내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비롯해 대한전선의 분식회계로 인한 채권단 보유주식의 폭락, 무역보험공사의 모뉴엘보험금 지급 거부 등으로 시중 은행들은 최근 한 달 새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일련의 사태는 시중은행의 소극적인 대출 행태로 이어지고 지역 내 기업과 중소기업자들에게는 대출비중을 지속

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사태는 도내 건설업체들에게 불똥, 연 7~8% 이상의 고금리에도 대출승인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도내지역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수주, 선투자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중인 A건설사의 경우 최근 시중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신청했지만 건설업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 뒤 공사비 조달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욱이 신규 대출의 문이 막힌 것도 문제지만 이미 내준 대출금의 만기연장이 더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돈 굴릴 곳 없는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를 낮추며 기업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위기의 심각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은행마다 건설사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있

을 뿐 아니라 기존 대출금회수까지 압박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건설사들은 극심한 자금난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등 대형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은 건설사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출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건설업계 경영환경 올해도 캄캄”

작년 건설업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올해도 경영환경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중장기적 재무계획과 신용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홍수)은 최근 건설기업의 재무환경 분석과 전략적 재무 관리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2014년 상반기 상장건설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6%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세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로 전환했다.

영업이익이 감소해 이자보상비율이 63.0%를 나타내 전년 동기보다 39% 하락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건설기업의 비중이 42.5%를 차지했다.

건산연은 또 시중은행들이 건설업종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건설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 대출 잔액이 2014년 2분기까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30조원 가까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최근 건설경기 관련 지표들

건설산업연구원 분석

해외시장 수주경쟁 심화 공사 수익성도 크게 악화

중장기 재무계획 재검토 전략적 신용관리 필요

이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올해도 건설기업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건설사에는 해외건설 수주경쟁 심화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주택시장 회복으로 영업이익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 유럽 등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연되고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해외건설 수주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건산연은 예상했다. 해외건설 매출은 대형업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한다.

건산연은 동시에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비용을 압박하는 요인들도 많다고 밝혔다.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은 지난해 다소 수주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다수 중견건설업체의 기업회생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수주한 건설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가 재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산연은 결국 건설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견·중소건설사의 재무여건 역시 악화일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불투명한 건설경기 전망은 건설업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건설사 자금조달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건산연은 또 최근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주택경기도 위험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중장기적 재무계획 균형을 유지하고 신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산연은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장기적 경영 안정성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기능, 즉 보수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산업이 단기적 회복세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볼 때 전략적인 신용도 관리가 재무 안정성 확보에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시장 내에서 지속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신용도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석기자 jskim@